

## 회의의사록

회의제목	2015년도 제2차 평의원회 회의	회의장소	복음관 회의실
회의일시	2015. 05. 27. 17:40	담당부서	대학평의원회
기록일시	2015. 05. 27.	기록자	권경만
회의자료		2014년도 결산 자료	
참석자 서명란	김태규 	박종걸 	원영희 
	김중완 	강혜민 	정해덕 
	오윤선(불) 	이재록(불) 	홍성호(불) 
회의내용	<p>김태규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개회하다. 383장 찬송을 부른 후 박종걸 의원이 기도하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안건 토의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4학년도 결산 자문                     <p>김태규 의장은 정관 35조의 7에 의거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학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자문해야 함을 설명하다. 이에 정해덕 기획평가실장이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하다.</p> <p>(박종걸) 등록금 수입이 5억 줄었다. 평생교육원 인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예산 운영에 타격이 크지 않은가? 그리고 예산 절감이 시급해보인다. 예를 들어 성경고사 때 모리아관만 개방해도 되는데 소수의 인원을 위해 밀알관도 개방하고 있다. 법인전입금 현황은 어떤가? 수익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가?</p> <p>(원영희) 도서관 개방은 정책적인 사항이다.</p> <p>(정해덕) 평생교육원 실습수입이 많이 줄었다.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해 정보과학부의 경우 실습실 인원이 적으면 1실만 개방한다. 운영비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돌파구가 필요하다.</p> <p>(위원장) 등록금을 3%라도 올리면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도 인상은 어렵다. 그러나 야간인원이 점점 줄면 관리운영비가 절감될 것이다. 졸업학점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.</p> <p>(김중완) 교육 외 수입을 늘려야 한다. 대관확대, 주차수입지속 등 재원마련이 되어야 한다. 기금이 22억 있기는 하나 타 대학에 비하면 미비하다.</p> <p>(최영민) 예산운영이 어려워보인다. 그래서 총학생회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장려하고, 에너지절약캠페인을 통해 관리운영비 지출을 줄이는데 동참하려고 한다.</p> <p>(강혜민) 2015년도 예산도 빠듯하다. 학생들의 기부금 동참이 필요하다.</p> <p>원영희 의원이 별첨 자료(수입, 지출 각각 15,368,304,527원)에 의한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니, 김중완 의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,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다.</p> <p>회의를 폐회하기를 박종걸 의원이 동의하고 권경만 의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으로 폐회를 선언하다.</p> <p>최영민 의원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치니 오후 6시 30분이 되다.</p> </li> </ul> </li> </ul>		
주요결정			
주요결정 사항			